

14년간의 반박해 정의(正義)는 필연코 승리한다



2013년7월18일 파룬궁 수련생 1500여 명이 미국 수도 국회산(国会山)앞에서 열린 14주년 반박해 집회에 참석했으며,국회의원과 비정부조직 대표도 그 자리에 함께 참석 했다.

【명해망】 14년전 중공(중국공산당)과 강택민 강패정지 집단은 미친듯이 파룬궁을 박해 했다. 파룬궁 수련생들은 반박해와 진상을 전하는 장엄한 노정을 걸었다. 14년후, 박해는 갈수록 종말을 가져왔고, 파룬궁 수련생들은 진상을 널리 알리면서 이 세상에 광명과 희망을 주었다.

최근에 북경 신안로교소(北京新安劳教所), 북경 녀자로교소, 료녕조양로교소(辽宁朝阳劳教所), 호북사양로교소(湖北沙洋劳教所)등 중공의 악당은 어쩔수 없이 파룬궁 수련생들을 석방 했다. 박해의 흉수 강택민을 포함한 불법 관원들은 30여개 나라에서 고문죄(酷刑罪), 반인류죄(反人类罪), 단체섬멸죄(群体灭绝罪)로 기소당했으며 법률의 제재(制裁)를 당했다.

각국 민선(民选) 관원들은 중공의 박해를 비난 했다. 몇일 전 미국 두 당 국회의원(议员)들은 공동으로 281호 제안을 발표 했으며 중공이 파룬궁 수련생들과 기타 사형수의 장기를 강제 적출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라고 주장 했다. 갈수록 많은 대륙 민중들은 반박해 행렬(行列)에 들어서고있다. 흑룡강 박리현(勃利县)의 성실한 류봉성(刘凤成)이 2013년 3월 29일에 납치되자 촌민 16가정에서 “류봉성은 우리촌의 좋은 사람이다”라고 연합싸인을 하고 손도장을 찍었다. 촌 책임자와 파출소에서는

도장까지 찍어 담보하면서 그를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 했다.

하북성 창현(沧县) 70세의 손옥강(孙玉强)은 2013년 6월에 납치 되어 당산(唐山)감옥에서 박해를 받았다. 2000여명의 민중들이 연합싸인하여 진정한 범죄자를 단죄하고 손옥강을 석방 하라고 했다. 이러한 실례는 대륙 각지에서 점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민중들의 박해를 싫어하는 마음을 얼마만큼 보낼 수 있다.

강택민은 3개월안에 파룬궁을 소멸 한다고 떠벌렸지만 14년간의 반박해의 노정(历程)은 ‘똥싼런(眞善忍)’의 신앙은 견고하여 파괴할 수 없다는것을 증명했다. 세인들은 중공의 사악을 똑똑히 보아 냈으며 이미 1억4천만 중국민중들이 중공의 당, 단, 대조직에서 탈퇴(3퇴)했다.

중공의 정신(正信)에 대한 박해는 사회도덕의 급속적인 하락을 조성했다. 독성 식품이 범란하고 있으며 죽는것을 보고도 손을 내밀지 않는 비도덕적인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또한 사람마다 피해자이기도 하다. ‘똥싼런(眞善忍)’은 미래의 희망이다. 이 한차례 정의와 사악의 정사대전의 결말은 추호의 의심도 없는바 매사람은 빨리 정의의 일면에 서서 자신과 가족을 위해 광명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파룬궁 간단한 소개



파룬궁은 1992년 리홍지 선생이 장춘에서 전해 나온 불가상승(佛家上乘) 수련대법이다. 파룬궁은 완전한 한조의 성명쌍수(性命双修) 법문(法門)이며 우주의 최고특성 찌 · 찌 · 찌 · 찌를 수련 원칙으로 한다.

심성수련을 강조하며 수련인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부터 힘써 찌 · 찌 · 찌 · 찌의 표준에 따라 개인의 심성을 제고해야 한다. 그리고 5조의 느슨하고 우아한 공법동작이 있다. 파룬궁은 돈 한푼도 받지 않고 의무로 공을 가르치며 일체 활동은 모두 공개적이면서 무료이다.

모든 파룬따파 서적과 영상자료는 모두 인터넷에서 무료로 내려받고 복사할 수 있다. 파룬궁 수련은 형식을 중요시하지 않으며 배우려는 사람은 배우고, 배우지 않으려는 사람은 바로 가도 되며 서명책이 없고 회원이 없으며 오고 가는 것은 자유이다.

■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연길시에서 마트를 경영하던 서란시의 곡성(曲成)이 납치 되었다.

【명혜망】 길림성 연길시에서 마트를 경영하던 서란시의 파룬궁 수련생 곡성은 연길시정부인원에 납치 되었다.

2013년 7월 30일, 연길시정부에서 서란개원향(开原乡)에 사람을 파견해 연길에서 납치한 곡성을 서란으로 데려가라고 했다. 서란시에서는 3명을 파견해 왔는데, 그중 공안국 인원이 1명, 610사무실 1명과 개원향 부서기 채모씨이다. 곡성이 납치된 이유는 불명이다.

■ 6년전 악경에게 맞아 뼈가 부러졌던 연길시 박광훈이 또 다시 납치 되었다.

【명혜망】 길림성 연길시 조선족 파룬궁 수련생 박광훈(朴光勛)은 2013년 7월 17일 오후 2시 좌우에 연길시 인평촌에서 선원DVD를 사람들에게 배포하다 악인에게 고발당해 중공(중국공산당) 경찰에 납치 되었다.

박광훈은 몇년전 룡정시 조양천 시교에 있는 한 룡양원에서 일을 했다. 그는 선량한 사람으로 소문이 자자하다. 2007년 1월 11일 밤, 그는 조양천에 거주하고 있는 파룬궁 수련생 신학선(申学善), 리홍원(李洪園)과 함께 농촌에서 파룬궁 진상을 알리다 경찰에 룡정시 룡문파출소로 납치 되었다. 연속 10시간 동안 매달기, 구타, 쇠 의자에 앉기, 냉수 끼이기, 머리 잡아당기기 고문을 당했다. 경찰은 아랫배를 사납게 밟았고, 더러운 밀걸레로 얼굴을 사납게 문질렀다. 하루밤 사이에 박광훈은 뼈가 여러곳이 부러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되었다.

당시 박광훈의 동생은 경찰을 향해 책임을 물었고, 그후 룡문파출소 경찰 3명은 면직을 당했으며, 손해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박광훈은 한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후 동생이 박광훈을 시골로 데려가서 휴양을 시켰다. 몇달전 까지만 해도 박광훈의 팔 다리는 아직 완전한 회복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너무 오랫동안 법공부를 못했다고 생각되어 산골에서 내려와 쓰레기를 주으면서 길거리에서 노숙하다 지인들에게 발견 되어 안정을 되찾았다. 그가 이번에 또 납치될 것이라고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다.

“신앙은무죄 박해를정지”



새 생명을 얻은 한국 파룬궁 수련생

한국파룬궁수련생 반임순과 그의 남편 리종대는 파룬궁을 수련하여 5개월만에 반임순의 당뇨병은 완쾌되고 리종대의 장암도 사라졌다. 그들은 새 생명을 주신 사부님께 감사를 드렸다.